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향후전망

## The Development of Jeju Global Education City and Its Prospect

김 원 보(Kim Wonbo)\*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 1.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
  - 2. 주요쟁점
  - 3. 문제점 및 제언
- III. 필리핀 사례검토 : 필리핀의 영어교육 및 환경
  - 1. 언어정책
  - 2. 학교영어교육
  - 3. 영어사용 환경
- IV. 향후전망
  - 1. 전제조건
  - 2. 전망
- V. 나오며

## I. 들어가며

세계화·국제화·개방화의 흐름 속에 영어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다민족 다언어로 이루어진 이질적 세계를 영어의 힘을 빌려 하나로 통합시키기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위해 영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어으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영어공부 열풍이 휩쓸기 시작한지 10여년 이상 되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세계 토플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ETS가 최근 공개한 2004년-2005년 토플 시험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토플 응시인원 55만4천942명 중 한국의 응시인원이 10만2천340명(약 1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8만2천43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토플 평균 점수는 CBT(Computer-Based Toefl) 300점 만점에 215점으로 토플 시험 평균성적이 나온 전세계 147개국 중 93위를 기록했다. 토플 응시인원이 많은 주요국들의 점수를 대략 살펴보면, 독일(253점), 이스라엘(240점), 프랑스(237점), 케냐(233점), 필리핀(234점), 브라질(230점), 나이지리아(229점), 콜롬비아(221점), 터키(217점), 중국(215점), 이탈리아(205점), 일본(191점) 등의 순이었다.(연합뉴스, 2006-8-14)

이처럼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낮은 것은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영어 공부를 덜 하기 때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영어공부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된 연결고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 때까지 심지어는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그 영어공부라는 연결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즉 한국에 태어난 이상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그 연결고리 속에 얽혀있다.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서 토익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대학생은 취업과 유학을 위해 전공보다는 토익, 텡스, 토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국내의 어느 대학도서관을 가든 책상 위에서 영어시험 관련 책이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영어공부는 성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고등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유학을 가기위해, 중학생은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생들은 특성화고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부모의 생각 속에 선행학습의 일환으로 영어공부에 매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아무리 영어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퍼지자 영어공부를 위한 외국으로의 영어연수가 유행처럼 번졌다. 처음에는 미국과 캐나다 영어연수로 시작된 외국어 연수가 영국과 호주를 거쳐 이제는 좀더 비용이 저렴한 필리핀, 인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으로의 영어연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영어를 배운다는 것 이외에 학생들이 젊은 시절 외국으로 나가 외국의 문화와 문물을 배우는 일종의 외국어신사유람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크다. 국가적으로는 국부유출이라는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외국으로의 영어연수는 얻는 이득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영어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본 고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성공가능성과 그 전제조건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2장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추진배경, 주요쟁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유사 사례연구로 필리핀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의 전제조건과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1장과 5장은 본고의 서론과 결론에 해당한다.

## II.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2007년 9월초에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여기서는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 정부가 제시한 사업추진방식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요쟁점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1.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

국무조정실은 2007년 9월 4일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와 합동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품질의 저렴한면서도 안전한 영어교육 기회를 다양한 계층에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의 기본 목표는 국가차원의 영어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집행은 건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소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교부는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학교설립 운영, 영어교육센터 설립,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관련 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부지 제공, 공공기관 설치 및 교육기관 유치·설립 지원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영어교육도시의 추진배경으로 고품질 저비용의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영어교육의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국내의 영어공교육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져서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영어사교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반해 기존 영어마을로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다.

2006년 초·중·고 유학연수생은 4만 5431명으로 지난 2001년의 2만 6676명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유학 및 어학연수 수지적차도 지난해 44억 6000만달러로 지난 2001년 10억 6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4.2배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시 및 취업준비 등 영어사교육비도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하고 주거·상업·교육 등의 수익모델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426만㎡에 들어서는데 생태 1·2 등급지 및 곳자왈지대(210만㎡)는 보전하고, 생태 3~5등급지 216만㎡를 개발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영어교육센터 등 교육시설은 82만㎡(38%), 주거 및 상업시설 등 지원시설에는 134만㎡(62%)가 배정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국제고 1개교 등 총 12개의 학교가 설립돼 총 9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기숙사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 정주형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고등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해온 국제고를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키로 했다.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는 공공재원으로 건립한 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민간재원으로 건립하는 순수 사립학교 방안으로 하되, 개발계획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제주교육도시내의 초·중·고등학교는 국어와 국사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되며 정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고 학력도 인정된다.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이며 교육기간은 초·중학생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대입준비 등을 고려 3년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 학생은 전국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기회균등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도 적정인원을 선발, 장학금 등 학비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등록금은 교육과정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수준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사는 영어에 능통한 국내교사 및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면 9000명의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로 유출되는 비용, 연간 3억2400만~5억4000만 달러의 외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출연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영어교육센터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혁신과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영어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영어교사와 공무원 등 성인영어 연수를 담당하게 되고 교육방송(EBS) 및 인터넷 강의(e-learning)를 통해 전국에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고품격의 정주형 영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공사에 착수, 부지조성, 교육 및 주거시

설 건축 등을 거쳐 오는 2013년 2월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개발계획 수립 등을 감안, 2009년부터 2013년 2월까지로 정했다. 1단계 사업인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 설립과 영어교육센터 등 시설 건축은 2010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또 영어교과서 및 교재 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초·중·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은 2008년 초에서 2009년 하반기 사이에 추진되며 교사 선발은 2009년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후 도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사업완공 이전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 2. 주요쟁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논란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제주영어교육도시내의 사립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국립으로 할 것이냐 공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가 공립으로 결론지어진 마당에 학교 건립비용을 제주도만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책임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제주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할 경우에 과연 지방교육재정에는 부담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 섞인 걱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사용 환경은 어떠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것이 아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아직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시설건립과 비용문제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논란은 제주도민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내의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과 운영주체가 되는 공립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이런 결론에 대해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반한 빗나간 국책사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상에 밀리면서 정부예산의 추가지원과 교육제도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국립학교 설립을 포기하고 정부의 의지대로 공립을 수용하였다. 공립학교로의 결정에 대한 우려는 지난 10월 12일 제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설명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 참석자는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는 학교를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이 흐지부지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성공여부, 공립학교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국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하더라도 학교가 공립으로 되면 결국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학교 설립·운영비 전액 지원 여부 및 학생모집 등에 따른 규제완화의 범위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밖에 국립학교를 배제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결국 장밋빛 청사진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립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국립학교로 추진하면 전국 학부모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지방정부 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민과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정부가 정공립으로 가야한다면 일단 국립으로 개교한 뒤 2-3년간 운영하면서 학교가 안정화된 후에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런 제주도민의 우려와 비난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국·공립 문제를 떠나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여부를 떠나 제주도에 사업추진을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를 제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사업이고, 수요측정도 이미 확실하게 끝난 만큼 제주도민 모두가 걱정 없이 정부의 의지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정부 측은 거듭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는 공립학교 건립비용의 부담주체 문제이다. 올해 11월 중순경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학교 및 기숙사 건설비용을 제주도가 내놓은 부지의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했다고 한다. 도민들은 정부가 사립을 제외한 영어교육도시의 학교 운영방식을 국립에서 공립으로 변경한데 이어 관계부처 사업이행 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공립학교 및 기숙사 건립비용을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가 영어교육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정부가 말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을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격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립학교를 제외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교운영 방식을 국립에서 공립으로 변경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중 관계부처 사업이행 협약 체결을 앞두고 소요재정을 부지개발 이익금으로 명시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이 사업자체가 버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어서, 자칫 대폭 축소내지 백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영어교육도시 학교 운영형태를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재정지원은 충분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개발이익금으로 공립학교 등의 건립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즉 올해 11월 21일자 도내일간지들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초·중·고 각각 1개교씩의 공립학교 및 기숙사 건립에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20일 오전 제주영어교육도시 관계부처 1급 회의를 열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오는 2010년 개교 예정인 공립 초·중학교 각 1개와 국제고 1개, 그리고 이들 학교의 기숙사 건립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내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공립학교 및 기숙사 건립비용을 영어교육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하려던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반대와 도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혀 보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교육도시 개발이익금은 내년도에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된 이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설 공립학교 초·중·고 각 1개교씩 3개교의 건립비용, 최소 902억원에서 1200억원에 이르는 건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등을 설득시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반색



하면서 영어교육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은 추후 개발이익금이 얼마 발생할 것인가 윤곽이 드러난 후에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 번째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제주교육도시를 운영하는 문제로 미래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예측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 교조 제주지부는 2007년 9월5일에 제주도정은 검증되지 않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책으로 교육을 산업화한다면서 자칫하면 지역 공교육의 틀과 지방 교육제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교육제정과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국립학교 대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주도는 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공립학교의 설립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과 교육규제 완화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이라 하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손실사업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가 공립이 된 이상 제주도가 짊어지고 가야할 부분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부의 입장은 제주교육도시 내의 학교를 공립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시설분야에 한해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해주되, 운영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 하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해나간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및 제주도민의 입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책사업이므로 제주영어교육도시내의 학교를 국립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예산과 책임 하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경쟁력 있게 키워나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은 결국 강자의 위치에 있는 정부의 입장으로 추가 기울어 모든 것이 정부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 3. 문제점 및 제언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안이 발표된 직후 영어교육의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 속에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기러

기 아빠로 대변되는 한국 영어교육의 숨겨진 이면의 왜곡되고 고달픈 현실에 이런 획기적인 영어 교육환경의 장이 마련되는 데 공감한 국민과 제주도민의 큰 기대를 받은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립으로서 시설과 운영을 위한 엄청난 예산의 안정적 확보문제, 교육의질 문제, 그리고 영어마을의 전례를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처한 솔직한 처지이다.

이런 현재의 어려움과 염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국·공립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립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최근 입장은 기존의 국립학교도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추세이고, 교육환경의 변화로 국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재정지원이 더 잘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이런 입장을 수용하되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등과 같은 다른 쪽에서 확실한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흑자사업이다. 정부의 사전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7800억원 정도며, 개발단계에서 부지를 조성하여 주거 및 상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 얻을 개발이익이 1345억원 대이고, 학교, 기숙사, 영어교육센터, 기타 문화체육시설 운영비는 연간 325억원 정도 들고 운영수입은 연간 469억원 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운영비보다 운영수입이 많아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난 후에 운영은 흑자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성단계에서 국고 투입규모는 개발이익의 활용과 민자유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부 개발계획 검토시에 구체화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주도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수치는 제주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를 상정한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나온 예상수치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국책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나름의 논리개발 및 계산에 근거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명분과 논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의 중앙부처 및 관계전문가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세부사업과 재원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주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염려이다. 먼저 정부의 입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내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질은 해외유학이나 연수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는 정규교과를 영어로 배우고 학력이 인정되므로 해외유학생이나 연수생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부담을 느끼는 학습부진과 학년진학 지체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품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즉,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영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영어교수법 연구, 교과서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교육방송과 e-learning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영어심화학습과 연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실정과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어교육의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잊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외적인 요인만으로 영어교육의 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어학습자가 외국유학이나 연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 내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완전히 영어로만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즉 외국의 경우는 영어로의 완전 몰입교육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과 거의 동일한 학습과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영어교육도시를 영어상용화 지구로 지정하여 가능하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영어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측대로 성공하지 못함은 물론 일부에서 우려하는 유학을 위한 또 다른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영어마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영어마을도 처음 조성당시는 수요 및 사업성 예측을 통해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거의 실패작으로 끝나버린 사업이다. 제주도는 타시도의 실패한 영어마을의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마을의 주요 실패 원인으로서는 제한된 시설에서 1-2주 정도의 단기 영어체험 학습과정이라는 점, 정규교사 자격자가 아닌 강사진에 의한 학습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운영과 관리측면

에서 고비용구조로 비효율적이었다는 점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제주도가 주목해야할 것은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고비용구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이 수익금을 토대로 앞으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감은 물론 수익구조를 탄탄히 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 2의 영어마을로 전략할 것이라는 것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 Ⅲ. 필리핀 사례검토 : 필리핀의 영어교육 및 환경

이 장에서는 필리핀의 영어교육과 영어사용 환경을 검토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필리핀의 학교에서는 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어사용 환경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 언어정책

필리핀 민족은 말레이족에 기반을 두고 중국인, 미국인, 스페인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들이 섞여있다. 필리핀 국민들은 스페인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로 인해 서양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 모두에서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혼합된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민족구성의 다양성과 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환경으로 필리핀에는 70개 이상의 방언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왔다. 이처럼 다양한 종족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리핀어인 타갈로그어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약 25%의 인구만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40년대 중반까지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받아온 터여서 공식적인 언어생활과 학교교육에서 스페인어와 영어가 주로 쓰였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은 다문화정책, 특히 다언어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 인종구성의 특성과 과거 식민지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언어정책의 핵심은 종족 집단, 종교 집단, 언어 집단 사이에 평등권을 인정하여 언어 갈등의 해소 및 예방을 목표로 삼는다.

특히 미국의 식민지 기간동안인 1898에서 1935년 동안 필리핀의 학교에서 교수언어는 영어였다. 이는 식민지 지배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937년에 타갈로그어를 공식적으로 필리핀 국어로 채택하고 학교교육에서 영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필리핀인들이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영어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상황에서 사회적 성공과 신분상승을 위해서는 영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또한 식민지 기간동안에 필리핀의 국어인 타갈로그어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2차대전 직후인 1946년에 필리핀은 미국에서 독립함에 따라 필리핀의 국어를 모든 통치 및 교육의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영어를 용도폐기 처분할 수도 있었다. 영어의 운명을 결정하여 정부의 공식언어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학교교육에서 교수 매개언어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영어의 위력이 지나치게 커져있었고 필리핀 국어는 아직 영어의 지위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즉 학교현장에서는 필리핀어로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았으며, 또한 필리핀어로 된 교수와 학습 자료가 거의 전무해서 구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필리핀어는 지식을 획득하고 전달하기에는 불충분한 언어수단이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상태에서 언어학자들이 필리핀어를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고 보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까지 정교하게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독립 후에도 영어를 학교현장의 교수언어이자 정부의 공식언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거의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이나 언론매체의 언어도 대부분 영어이고,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영어와 타갈로그어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필리핀은 다민족 다언어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민족과 언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영어이며, 요즘은 아시아 시장에서 영어교육산업의 위력을 느끼면서 영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가는 추세다.

## 2. 학교영어교육

필리핀에서의 영어교육은 외국어교육이 아니라 공용어 또는 상용어 교육에 가깝다. 필리핀 국어와 역사 과목을 제외한 모든 학년 모든 교과서 내용이 영어로 되어있으며, 교수언어도 영어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고 수업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영어에 대한 읽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는 교과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유치원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고 영어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초등학교에 들어온다.

필리핀은 영어가 실제생활에서 사용되는 환경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 부분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필리핀의 영어교육이 성공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부분의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해 오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 정부는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종족간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영어가 종족 통합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언어 정책이 영어교육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동력이다.

필리핀의 영어교육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4~5학년 정도가 되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무리가 없다. 6-3-3-4의 학제인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6-4-4의 학제로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매일 80분씩 영어수업을 받고, 고등학교 4년 동안은 매일 60분씩 영어수업을 받는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모든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으며, 수업도 영어로 진행된다. 즉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함은 물론 다른 과목의 교재도 영어로 되어있고, 교수언어도 영어로 영어몰입교육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영어의 위상을 생각하면 학교에서의 영어교육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대부분의 교재, 교양·전문서적, 신문·방송에서의 언어도 대부분 영어이다. 이런 필리핀의 현실을 생각하면 필리핀에서의 영어교육은 외국어 교육이라기보다는 모국어교육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어의 4가지 영역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전공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수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리핀의 영어교육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교육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 3. 영어사용 환경

영어는 필리핀에서 마치 모국어처럼 일반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문방송의 매개언어가 대부분 영어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생활에서도 필리핀 사람들끼리 영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든 필리핀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만 할 수 있다면 필리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영어는 이렇게 필리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오랫동안 스페인 및 미국과 같은 서양국가의 식민지 통치 때문에 서양문화와 문물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 영어가 일종의 민족간 의사소통 언어의 역할은 물론 국민통합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영어 및 서양문물의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필리핀의 학교교육에서 교육매개 언어가 영어라는 점이다. 필리핀 학교에서의 교육은 필리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가 아니라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영어사용이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영어는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상용어이다.

필리핀의 경우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영어능력이 고등학교나 그이하만 졸업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우수하다. 이는 교육현장의 언어가 영어여서 좀 더 많이 영어에 노출된 사람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조성이나 모국어 보존문제는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도 영어에 위축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영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영어상용화가 많은 사람이 염려하듯이 모국어사용의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영어는 상류층의 언어가 되고 한국어는 하류층

언어가 되어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필리핀의 예를 살펴보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은 영어가 상용화된 나라여서 영어만 할 줄 알면 언어생활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신문·방송·인터넷등이 거의 대부분 영어를 매개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도 영어로 처리가능하고, 종사자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식당·호텔·쇼핑몰·서비스업계 등에서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처럼 필리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이 사업·투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때문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나라다. 물론 사회의 영어사용 환경 즉 모국어 방송이나 신문 보다 영어방송 채널이나 신문이 더 많고, 영어구사능력이 특별히 우수하면 고객센터 콜센터나 외국계 회사와 같은 보수가 많은 직업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구조가 수준 높은 영어사용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친영어환경은 학교에서 영어는 물론 다른 과목까지도 영어로 교육을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은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에 대해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모국어차별이라거나 영어사대주의 또는 식민지의 잔재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영어사용 환경으로 이어져서 언론매체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책도 영어로 쓰여진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필리핀 사회의 언어사용 환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주 언어는 영어이고 보조언어가 타갈로그어인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어는 공용어이면서 방송·신문·교육·서비스 산업의 주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리핀이 영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필리핀이 처한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필리핀에는 영어사용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이는 필리핀에서는 영어도 거부감 없이 많은 민족어나 방언들 중 하나 정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 IV. 향후전망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국어와 국사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진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환경이 필리핀과 유사하다. 이런 이유로 앞장에서 필리핀의 언어정책, 학교교육 및 영어사용현황을 검토했다. 여기서는 앞서 검토된 필리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한 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제조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동북아의 핵심적인 국제교육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는 어떻게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여 학교수업의 질을 담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교사는 영어에 능통한 국내교사 및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인 선생님 중에서 영어 및 교과목 수업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국어와 국사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향대로 전국에서 영어로 수업 가능한 선생님을 찾아내어 필요하다면 재교육과정을 거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서 영어로 수업 가능한 적지 않은 수의 선생님들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분들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진, 급료, 주택 및 자녀교육 등의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원어민 선생님을 관리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실정에 맞도록 재교육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학교의 정규교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영어몰입수업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공립학교에서 일반교과목을 영어몰입식으로 수업진행을 하는 학교가 없다. 그래서 성공적인 영어몰입교육의 운영으로 유명한 서울의 영훈초등학교의 예라든가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영

어몰입식 수업을 참고로 하여 제주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영어몰입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과목에 따른 교수방법, 수업보조자료 활용, 학생 통제방법 및 교사의 수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수업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제주교육도시에 대한 논란은 공립이나 국립이나 하는 것과 공립으로 설립되었을 경우 그 운영비를 제주도가 과연 조달 할 여력이 되느냐하는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 시설과 운영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교육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떤 교육과 생활환경에 노출시켜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시점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세 번째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영어상용화 지역이 되도록 환경조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필리핀의 사례에서 확인 했듯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학교 밖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크게 학교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주형 복합시설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도 많이 거주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외생활에서 학생들은 영어보다는 주로 한국어만 사용되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학생들이 영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는 물론 교외에서도 영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학교 수업시간에만 영어를 쓰고 가르친다고 영어가 저절로 습득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리핀에서처럼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교외활동에서도 학생들이 언제나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교육도시가 언제 어디서나 영어가 사용되는 영어상용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영어상용화 없이 제주교육도시의 성공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상용화가 점차적으로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정주형 복합시설에 거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자연스럽게 영어상용화지역이 되도록

환경조성하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정주형복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제주교육도시에서 영어상용화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상용화 방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외국인이 와서 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어떻게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내국인이 와서 살도록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국인 유인책으로 외국인 친화적 복합·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귀포시 및 제주시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교육도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도내 문화·관광·교통·편의시설 이용에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상업·문화시설에 일정 수 이상의 저렴한 노동력의 영어구사 외국인(필리핀 등) 채용을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내국인으로는 문화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문화 상업시설에서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에 대한 영어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영어만 통용되도록 하는 상업·문화시설에는 임대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영어상용화를 바탕으로 영어상용화를 제주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주교육도시의 성공적 운영과 이의 확산을 위한 영어상용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행정 및 재정의 안정적 지원확보 문제이다. 제주교육도시 내의 학교운영은 공립으로 하되 필요한 시설분야에 한해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운영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 하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의 추가지원과 교육제도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국립학교 설립을 포기하고 정부의 의지대로 공립학교를 수용하였다. 이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이 생기도록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행정적 지원과 초기 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확실히 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의 전제조건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

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단계에서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2. 전망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책사업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여부는 제주도 보다는 재정지원 여부를 손에 쥐고 있는 정부의 지원 및 의지에 달려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장동력으로 관광을 비롯한 대학캠퍼스 및 투자유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결국 교육산업이 제주에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일 실패한다면 제주경제를 두 세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영어교육도시지역은 처리 곤란한 거대한 공룡이 되어 두고두고 실패의 책임소재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을 갖도록 하는 징조가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2009년에 착공되어 2010년에 개교할 제주교육도시내의 초·중·고 1개교씩과 기숙사 시설이 모두 정부재원으로 짓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교육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로 제주교육도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 또한 올해 12월 1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로 선출되어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영어상용화에 대한 공약과 생각을 분석해보더라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제주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외국관광객이 제주에 오면 영어로 소통이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는 네덜란드 수준 정도의 영어공용화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청부터 영어공영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과 함께 “제주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를 술술 할 수 있도록 하면 육지에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제주도로 온다”며 특별예산지원까지 약속했다. 한 해에 전국 초·중·고등학생 4만 5000명이 유학으로 쓰는 비용의 반만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의 CEO출신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상징성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은 물론, 제주에서 영어상용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지원까지 약속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수요예측과 유인효과 측면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어로만 수업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풍부하다. 지난 2006년에 4만50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유학 및 어학연수목적으로 해외로 나갔으며, 또한 한국 내에서 영어의 위상 및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의 인기 등으로 인한 영어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수요목표치는 2005년 기준 유학 및 어학연수생,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 9만 명의 10%인 9000명으로 설정된 것으로 한국 내에서 영어에 대한 폭발적 잠재수요를 생각하면 오히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이런 낙관론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의지, 제주교육도시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교육 관련기관의 의지 및 앞 절에서 지적된 전제조건이 충족이라는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만일 이 삼박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V. 나오며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은 제주가 가진 지역적 경

제적 정치적 역량의 한계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국내의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구와의 경쟁에서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고전해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면 다른 시도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비슷한 유사사업을 추진하여 제주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식의 다른 지역의 모방사업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차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상황이 다르다. 우선 한국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조기유학의 대안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제안되고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육사업이어서 다른 지역이 지역예산으로 모방사업을 추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잘 되면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규모를 점차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때문이다. 또한 섬이라고 하는 제주의 지역적 차별성 때문에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다른 시도가 흉내 낼 수 없는 제주만의 특화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사실도 정부가 제주를 영어교육도시의 후보지로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 만일 영어교육도시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 속에 건설되고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여러 지역이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유사사업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에서 거의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하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전체 인구의 1%라는 인구와 경제의 소규모가 국내의 반대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다른 지역이 흉내 낼 수 없는 제주만의 특화사업으로 만드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발전시킬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원하는 사업이 다른 시도가 모방할 수 없는 바로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과 같은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의지가 분명하고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밝은 사업이다. 제

주영어교육도시가 2009년 착공될 예정이어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 및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나갈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와 발전적 비전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기관 및 제주도민의 확실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정 곳곳에 여러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단점이 발견되면 지혜를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요청해야만 할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대로 국책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 가능성과 전망이 매우 밝은 사업으로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에 있어서는 제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제주를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규제완화를 비롯한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분명한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와의 협상에 임해야 하며, 관련 교육기관은 소탐대실의 자세를 떠나 전도적인 입장에서 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제주도민은 행정기관의 영어교육도시사업추진을 적극 지원 격려해주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김성억. 2000.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 환경 개선 방안,” 「영어교육연구」 12권 1호.
- 김원보·이용민. 2007. “필리핀의 사례검토를 통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방안.” 「제주영어영문학」, 12권 2호.
- 김종훈.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바람직한 영어정책의 방향”, 「언어학 연구」 7권 1호.
- 박경자 외 30인. 1998. 『영어교육입문』. 박영사: 서울.
- 박영준 외 4인. 2004. 「영어공용화 국가의 말과 삶」. 한국문화사: 서울
- 일간 및 대학신문. 2007.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대신문 등.
- 조영옥. 2003. “한국과 필리핀의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비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언어학회.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
- 제주언어학회. 2003. 「제주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방안 세미나」.
- Dubin, F and E. Olshtain. 1986. *Course Design: Developing Programs and Materials for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ley, B. and P. Allen, J. Cummins, and M. Swain. 1990. *The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Profici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Won-bo. 2002. “School English Education in Free International Jeju City”, 「언어연구」 18-2: 43-58.
- Kim Won-bo. 2003. “Strategies for Activating School English Education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Manuscript.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 1995. “What is learning-centered communication?” *English Teaching* 50: 3-16.
- Richards, J. C. 1994. *The Language Teaching Matrix*.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olsky, B. 1989. *Conditions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